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이상규·국립국어원장

1. 언어 식민주의를 넘어서서

21세기에는 세계 언어의 최소한 절반 정도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침묵하게 되는 걸까? 지난 세기까지 서방 유럽의 몇몇 국가의 언어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에 살던 수많은 토착민들의 언어를 포식(glottophagie)하였다. 특히, 지난 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와 민족, 토착민들은 서구의 열강으로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거주지, 문화 체계와 언어를 일방적으로 약탈당했다.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말리에서는 소수만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가 10여 개의 아프리카 토착민 언어를 지배하고 있으며, 튀니지에서도 프랑스어가 아랍어, 몰타어, 이탈리아어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자의 언어는 피지배자의 언어를 지배하고 위축시킨다.

식민주의 언어 정책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나라인 필리핀의 예를 들어 보자. 필리핀의 국민 작가인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는 장편 소설 『에르미따』의 서문에서 미국 작가 제임스 펠로즈의 말을 인용하여 오늘날

의 필리핀의 불행은 '손상된 문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의 '손상된 문화'의 속성을 호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젊은 작가가 저에게 타갈로그, 일로카노, 비사야 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과 한 무리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글을 쓰며 예술가인 체하는 작가들, 그 일부는 대학에 몸담고 재외의 최신 문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그들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일본, 미국으로 이어진 오랜 식민지 시기 필리핀의 언어 혼란이 바로 그들 문화의 손상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말이다. 최근 필리핀의 경우 그들 민족어의 하나인 타갈로그어가 공용어인 영어의 위세에 눌려 중류 계층에서는 타갈로그어와 같은 혼종의 영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에서 소외된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타갈로그어밖에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언어의 식민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에는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어는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 다양한 여러 언어를 지배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영어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한 변이형을 가진 변종이나 혼종의 영어로 둔갑하여, 지난 세기에 무서운 속도로 죽어간 토착 언어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다.

50여 년 전 아프리카의 콩고, 알제리, 차드가 처했던 식민 상황에서 프랑스어가 행했던 언어적 억압과 현재 세계화의 물결로 밀려드는 영어의 언어적 억압은 그 상황이 다르다. 대규모의 중심 언어인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마저도 오늘에 와서는 영어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21세기의 언어적 억압은 지난 세기에 비해 억압을 받는 사람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그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은 문화적 식민주의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식민주의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는 문화라는 이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다. 언어 제국주의는 언어의 침탈뿐만 아니라 호명의 수단인 이름, 그들의 역사나 문화유산, 그들의 결속력, 그들의 지적 능력과 그

들이 자신에게 가진 믿음마저도 무력화시킨다. 새로운 형식의 문화적 식민주의 아래, 각양각색인 아프리카 부족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분열적 상황에 몰려 있다. 세계적인 언어의 식민지화와 그 이후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변방의 토착민들의 언어를 포식해 온 언어 침탈의 증거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케냐의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는 토착민의 언어인 키쿠유어로 글을 쓴다는 이유로 투옥을 당했으며, 우비크 족의 대량 학살을 통해 우비크어가 절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지난 2백 년 동안 언어의 소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언어의 소멸은 생태계에서의 종 다양성 소멸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생태계 위기의 한 징후가 된다고 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적응력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언어 다양성의 소멸 현상도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끌어와 쓸 수 있는 잠재적 지적 기반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환경 적응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이 두려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소멸해 가고 있는데도, 누구도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언어학자들조차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족이나 부족의 언어를 조직적으로 멸시하고 짓밟는 언어 식민지화에 대해서 일말의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았던 언어학자들은 이제 지난 시대를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2. 변두리 언어의 소멸

지배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언어 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나라 안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도시 언어(표준어)가 변두리 언어(방언)를 포식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도시 언어가 지배 언어로, 변두리 언어가 피지배 언어의 관계로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 안에서도 어떤

일부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론화하는 수단으로써 언어 지배의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엥 방언은 프랑스의 중심 언어가 되었는데 중앙 집권화한 왕국의 중심 언어인 시엥 방언 이외는 모두 '방언'의 속성으로 규정되었다. 만일 루이 14세가 나뮈르에 거주하였다면 프랑스 전역에 나뮈르의 발론어가 프랑스 표준어가 되었을 것이지만 우연하게도 프랑스 시엥 방언이 프랑스의 여러 방언 가운데 으뜸가는 방언, 즉 프랑스 표준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는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어'와 '민족'이라는 이념을 필요로 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저항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어'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다. 이러한 피지배자의 저항 방식마저 규정하는 식민주의 때문에 표준어 설계와 그 당위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표준화"라는 근대화의 환영까지 겹쳐 경성(京城)-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가 성립되었고 다른 모든 방언은 경성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표준어의 방언 포식이 시작되었다.

부족 또는 민족의 언어나 방언에는 그들 부족이나 민족의 삶의 지혜와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언어나 방언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부족 또는 민족의 언어나 방언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어와 방언은 모두 고유한 어휘, 문법, 그리고 음운 체계를 가지므로 국어와 방언 사이에는 국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어와 방언에 차이가 있다면 '지위 획득'이라는 면에서 국어가 방언보다 존중된다. 국어가 규범적인 언어인 표준어와 일치한다는 편견은 방언이 국어가 아니라는 오해를 낳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어'는 '국가어'이다. 표준어가 국가어인 '한국어'와 문화어가 국가어인 '조선어'를 합치면 민족 단위의 하나의 '국어'가 될 수 있다. 민족어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국가어'를 합쳐야만 진정한 하나의 통일된 '국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국어가 방언에 미치는 언어폭력과 포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일부

학자들은 국어는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방언들의 총합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어의 특질은 개별 방언들이 갖는 공통적 특질로 구성된다는 대단히 목가적인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 방언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방언들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역사적으로 엮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 식민화와 언어 포식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일종의 지적 테러리즘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는 제국의 정치·자본의 중심인 대도시의 문화로부터 파급된 ‘비즈니스 문명’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본질적인 문화 소통 방식인 언어도 중심으로부터 파급되었으며, 다양한 토착 언어가 절멸되거나 급속히 파괴되어 언어의 생태계도 위협을 받기 시작한 시기였다. 범위를 좁혀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수천 년 동안 개인과 개인이 쌓아 올린, 언어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방언이 표준어라는 힘 있는 언어로부터 지배당하게 됨으로써 급속한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다면, 변두리 언어의 소멸은 변두리 사람들이 살아오던 과거로부터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 모국어를 관리하는 정부가 두 개 있다는 현실은 우리 모국어를 항시 반쪽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다시 폭력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노정시키고 있다. 김형수(2006)는 “남과 북에서 서로 대결 의지를 높여 온 위정자들이 반공 정책과 반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한 결과 억압에 의한 언어의 자살 현상도 극심했다.”¹⁾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심에 자리한 표준어와 문화어, 그리고 변방에 자리한 방언들과 죽어가는 방언들 간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멸종으로 치닫는 생태계의 현상과 같이 죽어가는 강물, 물고기, 새들, 사라져 가는 나무와 들꽃처럼 변두리의 방언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소수 언어인 방언의 미학을 되살려 내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 ‘비즈니스 문명’의 유통 질서의 세계를 거꾸로 되돌려, 버려진 것, 변두리의 것, 소외된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게 하

1) 김형수, 「변두리가 중심을 구원할 것이다 - 한국 문학이 아시아 연대를 꿈꾸는 이유」, 『ASIA』 VOL 1. NO. 3, 2006, pp. 16~17.

는 일이 필요하다.

조선조 500여 년 동안 한자와 한문 사용자가 기득권을 행사했듯이 광복 후 미군정 치하에서부터 영어 능력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다. 20세기를 건너면서 영어 공용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지방 정부 곳곳에서는 영어 마을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전 세계를 지키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맡았던 적은 없었다.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상징되는 단일 문명의 위협이 인류의 코앞에 다가선 이 엄청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세기 서구 유럽의 산업화에 이어 20세기에 확대된 시장 경제와 세계화의 질서는 철저하게 다양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고유어는 다 증발해 버리고 한자어와 외국어로 뒤범벅이 되어 양상하게 여위어 가는 모국어는 영어에 다시 휘둘리고 있다.

어떤 발전이든 그 발전은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오직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진보적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단일화하고 획일화해 나가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한 언어는 한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선결 조건이다. 빌려 온 외국 언어에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삶과 경험의 무게를 온전히 잘 실어 낼 수 있을까?

3. 국제 연대화의 가능성

지난 세기는 얻은 것만큼 잃어버린 것이 많다. 서구 지배적 학문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은 탈제국주의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1992년 캐나다 퀘벡 주에서 개최된 국제 언어학 회의에 참석한 언어학자들이 채택한 선언문에서 “위기에 처하거나 죽어 가는 언어들을 문법·사전 및 구술 문학의 기록을 포함하는 문서 형태로 기술하기 위한 언어학 기구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또 가능하다면 후원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유네스코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는 선언 이후에 유네스코가 1993년 11월에 ‘위기 언어 레드북(Red Book of Endangered

Language)’ 등이 포함된 ‘위기 언어 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후 절멸 위기의 언어의 문제는 환경 위기 문제와 함께 국제적 논의의 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소홀하나마 1995년 도쿄 대학교에서는 ‘위기 언어에 대한 국제 정보센터’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는 ‘위기 언어 기금’이 설치되었다. 영국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언어의 절멸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기 언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서 “인류 역사상 두서너 세대 이내에 세계의 언어 대부분이 절멸하게 될 시점에 살고 있다.”라고 정말로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 활동으로 알타이 언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96년 언어의 미세 구조에 대한 연구에 포함되어 있던 언어학자들이 언어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함께 하여, 그 결실로 ‘바르셀로나 언어 권리에 대한 세계 선언(Barcelona Universal Declaration of Linguistic Rights)’을 이끌어 내었다.

최근 전주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제2분과 언어 분과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지난 세기 언어 제국주의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내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통 가능성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토착민들의 언어가 절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학자도 이 현실적인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많은 창작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서구 로마자 중심의 지배적 문자 표기 체계에서 무문자 토착민들의 구술 자료를 인류 문화 자산으로서 보존할正当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으로 아시아-아프리카(AA) 국제 협력 언어 포럼을 구성하여 무문자 토착민들의 구술 자료 보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시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카질라 하비(탄자니아)는 구체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양 대륙 간에 문자 체계 개발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표기 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지역 토착민 신문 발간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하자는 제

안도 있었다. 아마두 코네(코트디부아르)도 토착어의 유지 발전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4. 무엇이 문제인가?

금세기에 이처럼 급격한 언어 절멸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래도 15세기 이후 서부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진행해 온 제국주의의 침탈을 일차적인 이유로 지목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영토 침략은 자연환경 침탈로, 자연환경 침탈은 다시 토착 언어의 파괴로 이어진다. 부존자원의 약탈의 일례로 남벌(벌목)은 사막화, 기근,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초래하게 하는 동시에 내전과 질병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속하던 토착민들을 그들의 거주지 밖으로 쫓아냄으로 토착민의 언어도 함께 절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어가 절멸하는 것과 우리 삶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진화는 개체의 유전학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하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종 다양성은 생물학적 생태의 지속과 상속이 가능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은 대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콘도르'의 멸종을 인류 존속의 위기에 대한 한 징후로 볼 수 있듯이, '우비크 어'나 '에야크 어'의 소멸이나 '제주 방언'의 소멸 또한 인류 지적 상속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토착 언어는 토착민들이 구축해온 그들의 영혼의 사원이자 나아가 인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교의 이종교배 없는 순혈주의만으로 문화의 진보는 가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는 우수하고 어떤 언어는 세련되지 않은 원시인 또는 비문명적 언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번역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눅티투트 어'나 '크리 어', '오지브와이 어'가 영어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편견으로 영어가 이 지구상의 지배 언어로

정착된다면,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 손실에 대한 우리 정보는 너무나 부족한 반면, 위기에 처한 언어 보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결속성은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토착어의 절멸을 초래하는 지배 문화의 압력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절멸 위기의 언어 사용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배 언어에서 벗어난 토착어로 구성된 지명, 표지판, 공공 도로의 이름에 토착어를 사용하는 일이다. 둘째, 토착어 사용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수 언어권의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셋째,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해 교육 언어와 가정 언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실천 운동이 필요하다. 넷째, 토착어를 구체적으로 기록 문자로 남길 수 있는 표기 방법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그들 구술 자료의 언어 자료화(Corpus)와 문서화 작업(Documentation)을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가들의 조직화와 이들을 통한 토착어 보존의 실천화가 필요하다.

5. 구체적인 사례 분석(베트남의 언어 정책)

베트남은 1개의 다수 민족과 53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그러하듯 베트남 역시 다민족에 의한 다문화, 다언어 현상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베트남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100개에 가까운 소수 언어와 방언을 가지고 있다²⁾.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의 역사를 민족과 언어의 연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적 상호 작용의 융합, 통합의 역사로 만들어 놓았다.

2) 리 또한 탕,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의 상황과 정책」, 『제주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07.

1945년 독립 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소수 민족에 관한 결의문(1935)과 공산당 정치국 결의문(1949)에서 모든 소수 민족은 일상의 정치, 경제, 문화 활동에서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들의 구어와 문어가 학교 교육 등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서 베트남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텃밭이 확고하게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어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 민족 언어의 교육과 보존을 명문화함으로써 베트남 어와 소수 민족 언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베트남 문화의 근간을 살찌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소수 민족 언어를 교육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가 있어야 한다. 한국어의 경우 15세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져 현재는 한글로 모든 언어생활을 아무런 불편 없이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한자를 보완한 이두, 구결, 향찰과 같은 차자 표기를 사용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베트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도 1900년대 이전까지는 베트남어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자를 사용하거나 한자를 변형한 표기(쯔놈)를 사용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은 한자나 한자를 보완한 차자 표기가 비교적 전 국가에 걸쳐 단일하게 사용된 반면 베트남은 민족과 언어가 다양한 관계로 대표적인 표기 이외에도 소수 민족 언어를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표기 수단이 마련되어 사용된 점이 조금 다르다.

현재 베트남의 53개 소수 민족 가운데 26개 민족은 문자를 가지고 있고 27개 민족은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보고 되어 있는데 베트남 소수 민족의 문자 체계는 크게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한 체계와 전통 문자 체계, 그리고 20세기 들어 만들어진 로마자 체계가 혼용되고 있다. 로마자 표기 체계는 식민지 언어 정책이 수행되던 1800년대 후반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었는데 로마자 표기 체계가 확고하게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수십 가지의 로마자 표기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베트남의 문자 생활에 있어 로마자의 등장은 소수 민족들에게 언어 표현의 돌파구 역할을

한 것이다. 베트남 어와 소수 민족 언어에서 로마자를 표기 수단으로 확고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들의 사회적 기능은 확대되었으며 어휘, 조어법, 문장 작법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³⁾. 그 결과 현재 베트남의 언어생활에 있어 한자 사용의 필요성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은 한자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한글을 쓰고 있고 한글만을 사용하여 모든 한국어 표기가 가능하고 큰 불편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외래어의 순화와 맞물려 첨예한 대립을 빚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1900년대 중반 한자 사용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는데 그때에 진보 진영에서 국민들이 배우기 쉬운 로마자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여 오늘날 문자 생활의 토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한글이나 베트남 어에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 체계가 모두 국민들의 편리함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문화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정책이나 문화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편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소수 민족 언어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여 사회, 문화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자질 문자인 한글을 전 세계 무문자 민족 언어의 표기법으로 활용 보급하기 위해 ‘한글 나눔 운동’(Copyleft)을 제안한다. 무문자 토착민에게 한글 표기를 이용한 문자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토착민

3) 베트남 사회과학원, 『베트남의 소수 민족 언어』(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2002.

들의 소중한 구술 민족 문화유산을 기록·보존(유네스코 권장)을 권장해야 한다.

이미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려는 몇몇 사례가 있었다. '동티모르 한글 보급 사례'와 이현복 교수팀의 '타이 라후(Lahu)족 한글 보급 사례'와 박양춘 박사의 '한글을 세계 문자로 만들자' 계획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로 '몽골의 위구르 문자 도입 실패 사례' 등의 사례가 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언어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한글을 만능 표기 문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한글로써 표기 가능한 범위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5. 마무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언어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정밀하게 그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의 언어에 그들의 삶을 녹여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활동은 축소 또는 절멸될 것이다. 따라서 절멸 위기의 언어를 보존하는 일은 더욱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된다. 더욱이 절멸 위기의 언어들은 가족 언어와 학교 언어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지속 보존이 불가능하다. 이중 언어 교육을 목표로 삼아 사회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활동이 연장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수 언어의 보존을 위해서는 시민 활동가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정부 기관의 협조와 관련 기업인들의 재정적 협조 또한 필요하다. 그리하여 절멸 위기의 언어에 대한 연구와 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은 자생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4) 박양춘, 「한글을 세계 문자로 만들자」, 지식산업사, 1994.

참고 문헌

- 가와다 준조 저, 임경택 옮김, 『무문자 사회의 역』, 논형, 2004.
- 고은, 『우주의 사투리』, 민음사, 2007.
- 다니엘 네틀·수잔 로메인, 김정화 옮김,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그 많던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제이북스, 2003.
- 리미카벨로, 「언어의 혼성화로 인한 국어의 소멸 위기」, AALF, Sec 2-Language.
- 리또안 탕, 「베트남 소수 민족 언어의 상황과 정책」, 『제주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07.
- 루이 장 칼베, 김병욱 옮김, 『언어와 식민주의』, 유로서적, 2004.
- 루이스 응코시, 「언어: 문화의 번역 불가능성」, AALF, Sec 2-Language.
- 리디아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 횡단적 실천』, 소명출판사, 2006.
- 박양춘, 『한글을 세계 문자로 만들자』, 지식산업사, 1994.
- 안도현, 『안도현의 노트에 베끼고 싶은 시』, 이가서, 2006.
-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침묵의 언어』, 한길사, 1999.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3.
- 응구기 와 시옹오, 백혜경 옮김, 『마음의 탈식민지화』, 수밀원, 2004.
- 이상규, 『위반의 주술, 시와 방언』, 경북대학교출판부, 2005.
- 이상규, 『방언의 미학』, 살림, 2007.
- 이상규, 「Gyeoremarkensajeon: An Alternative to Inter-Korean Communication」, 『ASIA』, Vol 2, No3, 2007.
- 이상규, 「The World's preminent Writing System: Hangul」, 『Koreana』, Vol. 21, No. 3, 2007.
- 이상규, 「Linguistic Imperialism and Trans Language」, (For Language on The Verge of Extinction), AALF Organizing Committee, Section 2-Language.
- 이연숙·고영진·조태린,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 전성태, 「모국어에 대한 단상」, AALF, Sec 2-Language.

- 주강현, 『돌살, 신이 내린 황금 그물』, 들녘, 2006.
- 질 들뢰즈,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자본주의와 분열증』, 새물결, 2001.
- 케질라하비, 「아프리카의 언어, 문학, 평화」, AALF. Sec 2-Language.
- 페롱, 『불한사전』, 교회사연구회, 1869.
- 프란츠 M. 부케티츠, 두행숙 옮김, 『멸종 사라진 것들-종과 민족 그리고 언어』, 들녘, 2005.
-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사, 2005.
- Hobsbawm, E,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1990.(흡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 Hughes, M, 『Nationalism and Society : Germany 1800~1945』, 1988.
(휴스, 강철구 옮김, 『독일 민족주의 1800~1945』, 명경, 1995.)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formation, Nghien cuu ngon ngu cac dan toc thieu so Vietnam(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 Hanoi, 2002.
- Ly Toan Thang, 『The situation and policy on ethnic minority languages in Vietnam』(‘제주어와 제주 민속의 변화, 그리고 보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7.